

ML단장은 파리목숨인데...양키스 캐시먼 '20년째 장기집권'

메이저리그 단장들...그들만의 리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인종 차별의 벽을 깨고 재키 로빈슨이 메이저리프로 진출하게 된 것은 브루클린 다저스의 브랜드 리키 단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가 86년 묵은 ‘밤비노의 저주’를 깨고 정상을 차지한 것은 테오 엡스타인 단장(현 시카고 컵스 사장)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뉴욕 양키스는 트레이드 마감 때 거의 대부분 사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아롤디스 체프먼을 컵스에, 앤드루 밀러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로 트레이드했는데, 이는 브라이언 캐시먼 단장이 창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극히 일부 예를 들었지만 이처럼 메이저리구는 단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은 물론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를 고용하기도 하고 해고도 한다. 영화 제목처럼 모든 일은 비밀리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철칙인데, 물론 목표는 우승이다.



▲뉴욕 양키스 캐시먼 단장



▲시카고 컵스 테오 엡스타인 사장(전 단장)



▲워싱턴 내셔널스 마이크 리조 단장

캐시먼 단장 1998년 31세에 양키스 부임 ML출신 현역단장은 시애틀 디포토 유일 밀워키 스텐스 단장 1984년생 가장 어려

●단장도 파리 목숨

현역 단장 중 가장 오랜 기간 단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은 양키스의 캐시먼이다. 1998년 2월, 31세의 나이로 부임해 무려 19년 동안 팀을 이끌었다. 올해로 20년째다.

캐시먼 외에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고 있는 캐시먼은 텍사스 레인저스의 존 데이얼스 단장,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데이튼 무어 단장,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닐 헨팅턴 단장,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존 모젤리아 단장 등 5명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 시즌을 마친 후 애리조나 디백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단장을 역임한 마이크 헤이즌을 영입했다. 미네소타 트윈스는 데릭 펠비에게 전권을 맡겼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2015년 이후 단장을 바꾼 것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팀이나 된다.

●비선수 출신이 대다수

애리조나가 1989년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한 데이브 스투어트 단장을 해임하면서 현역 시절 메이저리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시애틀 매리너스의 제리 디포토 단장이 유일하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뉴욕 메츠를 거쳐 2000년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한 디포토 단장은 우완투수로 빅리그에서 개인 통산 27승(24패)을 올렸다.

신인 드래프트에 지명됐지만 빅리그 승격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마이너리그에서 은퇴를 한 단장도 마이애미 말린스의 마이클 힐 단장, 애리조나의 헤이즌 단장,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로스 앳킨스 단장, 워싱턴 내셔널스의 마이크 리조 단장 등 4명뿐이다.

보스턴은 헤이즌이 애리조나로 이적한 뒤 단장을 아직 선임하지 않았다. 29개 구단 중 나머지 24개 구단의 단장은 프로선수 경험이 전부다. 그 중 12명은 대학 시절까지 선수 생활을 했지만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 받지 못했다. LA 다저스의 파한 자이디 단장을 비롯한 12명은 선수 생활 경험이 아예 없다.

●수재들의 집합소

학부를 기준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들이 무려 12명이나 된다. 그 중에서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학 출신은 콜로라도 로키스의 제프 브라운디지 단장, 밀워키 브루어스의 데이빗 스텐스 단장,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데이빗 포레스트 단장, 템파베이 레이스의 머슈 실버먼 단장, 마이애미 말린스의 마이클 힐 단장 등 5명에 달한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마이크 처노프 단장과 애리조나의 헤이즌 단장은 프린스턴대학, 뉴욕 메츠의 샌디 엘더슨 단장과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맷 클렌택 단장은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했다.

텍사스의 데이얼스 단장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AJ 프렐러 단장은 코넬대학 동기동창으로 유명하다. 왕년의 명투수 데이브 스투어트가 물러남에 따라 고졸 출신 단장은 이제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세대교체가 대세

정확한 생년월일이 알려지지 않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제프 루노 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의 단장 중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14명으로 가장 많다.

최고령자는 1947년생인 뉴욕 메츠의 샌디 엘더슨 단장으로 2010년 10월 이후 팀을 이끌고 있다. 1958년에 태어난 알 아빌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단장과 맨 뚱뚱 볼티모어 오리올스 단장도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워싱턴 내셔널스의 마이크 리조 단장을 비롯해 1960년대 출신은 7명이다.

반면 밀워키의 스텐스 단장은 1984년생으로 가장 나이가 어리다. 이밖에 데릭 펠비 미네소타 단장, 마이크 처노프 클리블랜드 단장, 맷 클렌택 필라델피아 필리스 단장 등이 1980년대에 태어난 소년파다.

손건영 MBC스포츠플러스 메이저리그 해설위원

일본구단 본부장은 예산 관리, OB출신 GM은 선수 관리

(제너럴매니저)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일본프로야구 GM

1994년 지바 롯데, 선수출신 첫 GM 부임 왕정치 소프트뱅크 회장은 GM 영역 관여

요즘 KBO리그는 프로선수 출신 단장이 대거 부임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6시즌이 끝나고 부임한 프로선수 출신 단장만 박종훈(한화), 송구홍(LG), 고형욱(넥센), 염경엽(SK) 등 4명. KBO리그에도 야구인 출신 GM(제너럴 매니저)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프로야구(NPB)에서 구단 단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NPB에선 ‘본부장’이 KBO리그의 ‘단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서는 본부장 대신 GM 직함을 달아주는 구단도 있다. 이는 본업화의 좋은 예다. NPB 한 구단에서 근무했던 인사는 “NPB의 GM은 구단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요즘은 구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본부장 혼자 모든 것을 담당하기 어려워지니 파트를 세분화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즉 본사에서 내려온 본부장은 주로 예산 관리, 구단 OB출신 GM은 선수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다.

●프로선수 출신 히로오카 다쓰로, NPB 최초 GM

1994년 히로오카 다쓰로가 지바 롯데 GM으로 부임한 것이 프로선수 출신의 시발점이다. 히

로오카는 1954년부터 1966년까지 요미우리에서 1327경기에 출장한 유격수 출신. 이후 히로시마와 야쿠르트 코치, 야쿠르트와 세이부 감독, NHK 야구해설위원을 지낸 경력자였다.

이후 야마다 마사오(니혼햄·2008~2014), 오치아이 히로미쓰(주니치·2013~2016), 후나카무라 가즈히로(한신·2013~2015) 등이 프로선수 출신 GM이다. 특히 오치아이 GM은 2013년 말 부임하자마자 선수들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스타 이바타 히로카즈를 떠나보내기도 했다. 팀의 OB 출신으로 구단 수뇌부에 조언하는 것을 넘어선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2015년 9월 사망한 나카무라 전 한신 GM도 팀의 OB 출신으로 상징성이 컸다. 한신 구단은 그가 사망한 뒤 GM직을 아예 없앴다.

●GM인 듯 GM 아닌 GM 같은 왕정치 회장·호시노 부회장

2008베이징올림픽 일본야구대표팀 감독을 지낸 호시노 센이치는 2015년 말부터 라쿠텐 구단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FA(프리 에이전트) 협상 등 구단 운영에도 관여하는 GM 형태를 띠고 있다. 2015시즌이 끝나고 FA 이마에 도시야키의 영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마에 호시노 부회장이었다. 국내에 잘 알려진 왕정치(오 사다하루) 소프트뱅크 구단 회장이지만 마찬가지다. 2016시즌

을 앞두고 FA가 된 ‘빅 보이’ 이대호에게 “팀에 남아 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정도로 힘이 있다. NPB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왕정치 회장과 호시노 부회장이 GM직을 맡고 있지만, 그들의 조언 하나하나가 구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대세로 떠오른 ‘야구기자 출신’ 요시무라 GM

요즘 NPB에서 가장 주목 받는 GM은 요시무라 히로시 니혼햄 구단 본부장이다. 2015년 1월 니혼햄 총괄본부장으로 부임한 그는 팀이 2016시즌 퍼시픽리그와 일본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성공시대를 열었다. 그는 1987~1990년 스포츠닛폰의 프로야구 담당기자로 일했고, 1992~1999년 퍼시픽리그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행정업무를 배웠다. 2000~2002년에는 메이저리그(ML) 디트로이트 단장보좌직으로 일하며 견문을 넓혔고, 2003~2004년 한신 구단 총무부에 근무했다.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야구지식을 쌓았고, 그 결과 구단 본부장까지 맡게 됐다. 스포츠우트는 물론 선수단 지원까지 팀 운영 전반을 책임지면서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쓰쓰미 다쓰요시 요미우리 구단 본부장도 요미우리신문 사회부 기자 출신으로, 구단 홍보부장과 단장보좌직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GM으로 일하고 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mailto:posterboy@donga.com)

“한국형 GM 최우선 덕목? 소통할 수 있는 능력·소통하려는 의지”

▶1면 ‘송구홍 단장이 말하는 한국형GM’에서 이어집니다

송 단장의 말처럼 단장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인적 구성이다. 신인선수를 지명하는 일부터 육성, 선수 순환을 고려한 군 입대, 트레이드·FA·2차 드래프트 등을 통한 선수 영입까지 장기계획을 세워 선수단을 운영을 해야 한다. 송 단장은 “경기운영은 감독의 몫이다. 1군의 27명 엔트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선발라인업을 짜고, 경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싸울 것인지 단장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대신 감독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단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은 경기에만 집중해도 힘들다.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팀은 감독이 선수 구성부터 관여하게 된다. 서로의 역할을 잘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넘게 되는 것이다. 감독이 선수 고민 안 하게 해주는 게 단장이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GM? 소통에 답이 있다”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감독들은 자기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선후배 문화가 존재하는 한국야구의 고유 정서도 있다. 단장이 자신의 의견을 너무 앞세웠다 자칫 현장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송 단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함이 있다”며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그야말로 프런트가 현장에 ‘간섭’하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야구단에 있으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다. 그래도 선수 출신 단장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장점 중 하나가 어느 선까지 지켜야 하는지 아는 것 아닐까 싶다.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인터뷰 내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GM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덕목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소통하려는 의지라고 했다. 그는 “양상문 감독님과 오래 전부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추구하는 야구관이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혹 의견이 달라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신뢰가 있다”며 “감독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님께 내 의견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팀을 위한 일이라면 내 자존심을 내세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대신 진심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단 양 감독뿐만 아니다. 송 단장은 LG 신병법 사장과 매일 같이 티타임을 하면서 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소통의 범위는 워낙 광범위하다. 송 단장은 “자신을 모자란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어떤 사람의 의견이든 경청할 준비가 돼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야구단은 단순히 선수들의 인적 구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단 사무실에서 인재들이 요소 요소 배치돼 있어야 한다”며 “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팀원들

이 강해지면 날 실패할 수 있지만 팀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느 한 명 빼놓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구단, 프런트부터 그렇게 바뀌어야 진짜 명문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런트야구 아닌 시스템야구 구축이 목표”

송 단장이 프런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팀을 하나의 시계라고 믿기 때문이다. 작은 틱나비퀴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계는 멈추게 된다. 송 단장은 “경기는 현장에서 감독이나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하나가 프런트의 분위기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며 “1990년대 LG가 신바람 야구를 했을 때 구단 사무실부터 활기찼다. 구단 분위기가 좋아지면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직결된다. 선수단과 구단이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동반자라는 느낌을 받게 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물론 프런트 강화가 프런트야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송 단장은 “시스템야구가 올바른 방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송구홍이 없어도, 또 다른 누군가가 없어도 잘 운영되는 팀이 명문구단 아닌가.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누구 한 명이 빠진다고 흔들리는 팀은 미래가 없

다. 누가 빠져도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팀을 만들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선수들도 내가 선수, 코치 출신이지만 절차 없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구단으로 직접 가져와 상의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원칙을 세우려고 한다. 합당한 기준도 만들겠다. 결과는 나중에 고민하겠다. 과정을 더 중시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과정’을 잘 만들기 위해 벤치마킹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좋은 점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다. 송 단장은 “팬목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장점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며 “요미우리나 뉴욕 양키스가 왜 명문구단이었다가 무너졌는지 소프트뱅크, 니혼햄이 왜 좋은 구단으로 거듭났는지, 시카고 컵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게 됐는지, 만년 하위권이었음 클리블랜드가 성공한 이유는 뭔지 공부하고 있다. 두산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면 잘 배우겠다”고 말했다.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